Life p/13

설 당일 대형마트 문연다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2일

Entertainment p/17

진구 "난 자유로운 영혼"

삼성 '아둥가' 相生경제

제일기획, 토종 캐릭터 글로벌마케팅 지원

이서현사장 中企와 손잡고 180조원 시장공략

이서현 제일기획 경영전략총괄사장

ADOONGA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강경모드

p/2

"한미연합 군사훈련 北 정권교체 노력"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노리는 것이다."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최근 미국 전직 관리들과의 접촉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고의 협상카드인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현지시간) 일부 취재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 부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 측의 실현되기 어려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 평가는 어렵다"며 "앞으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탐색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를 맡았던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리 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과 만났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디트라니 전 소장과 함께 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전직관리들은 리 부상에게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yoona1@

이부영 정계은퇴 선언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계은퇴 할 선언했다. 이 고문은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에 전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원세훈 유죄판결, 박 대통령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완구 총리 인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 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확실한 대여 강경모드로 태환에 따라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관련해 "(대선후보였던)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 개입의 엄단이 드러났을 때 문 후보 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국을 좌우할 또 하나의 현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문 대표의 발언 이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이 후보자 인준 반대 방침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이 인준에 반대할 경우 여권 전체의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한 뒤 그동안의 앙금을 푼 듯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전 이 후보자의 인준이 나는 대로 미루던 소폭개각을 단행해 민심 수습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사 검증 실패로 줄줄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집권 3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강행할지 등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북·중 '신두만강대교' 올해 개통

중국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잇는 신 두만강대교가 올해 말 개통된다.

진춘산(金春山)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시장은 11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착공한 취안허 새 교량 건설사업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교량은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다리다. 현재 총연장 535m의 취안허-원정리 두만강대교가 있지만 이 다리는 1936년 세워져 심하게 낡았고 폭도 6.6m로 좁아 급증하는 양국 간 차량 통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두만강대교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대교는 638m의 교량 구간과 접속도로를 합쳐 총연장 1천100m,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다. 건설비 1억5천만 위안(315억 원)은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북중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대기업 진출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소제조업 투자와 무역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나선 특구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기밀유출업체 수사의뢰 해놓고 사업자 선정

방사청 400억 규모 무인기사업 이중의혹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400여억 원 규모의 정찰용 무인기 사업이 11일 이중의혹에 휩싸였다. 무기중개업계에 무인기 사업과 관련된 군사3급기밀이 유출됐고, 방사청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면서도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IAI사의 정찰용 무인기 헤론 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에스보다 성능과 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IAI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모 업체 회장은 육군시험평가단의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방사청 사업팀이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며 방사청장에게 투서를 보냈다.

투서에는 시험평가단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평가기준, 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평가내용이 방사청 내부문건 번호까지 적시돼 담겨 있었다. 내부분 3급으로 분류된 군사기밀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에 기밀유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와중에도 해당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 해당업체를 내세운 IAI사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기밀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군사기밀의 유출에 이어 방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기밀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병형기자

입영통지 기다리다 청춘 다 간다

입영시기 본인선택제로 경쟁률 높아 입대 예측불가

휴학 후 수년째 허송세월도…당국 "조사한 적 없어"

올해 22살인 K씨는 군대 입영 신청에서 4번 떨어졌다. 13학번인 K씨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위해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초 해병대 입영신청을 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K씨는 3개월 후 다시 지원한 입영 신청에서도 불합격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육군에 다시 지원한 K씨는 또 떨어졌고, 연말에 다시 육군에 지원했지만 올 1월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복학을 하려 해도 군입대 시기가 예측불가라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K씨는 군대를 먼저 다녀온 뒤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K씨처럼 군대를 가고 싶어도 언제 날라올지 예측할 수 없는 입영통지서만 기다리며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고 있다. 고액 등록금에 빚을 지고 취업마저 힘들어 '빚쟁이 백수'라는 빤한 미래가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11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군 관련 카페에는 '군대 빨리 가는 법'을 문의하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대다수가 학업과 생계를 위해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싶어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이들이 '군대 빨리 가는 법'을 알고 싶은 이유는 군입대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해·공군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여명 모집에 58만8500명이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2년 동안 입영통지서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넘쳐날 정도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감축된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든다.

현행 입영시기 본인선택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집기간을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로 나누어 경쟁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추첨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조사나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이라 입영 희망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뻔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 보내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 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손경식 CJ 회장 등과 함께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축소로 EBS수능강좌 반토막

사교육시장 들썩 지적

정부의 예산축소로 EBS 수능강의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EBS 수능강의 관련 사업현황 및 효과'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 1430강좌에서 2014년 672강좌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잡한 수시·정시 대입전형으로 인해 사기업 대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EBS 입시설명회 역시 2012년 400개교에서 2014년 203개교로 반토막이 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EBS 지원예산이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EBS 수능강의 사업예산은 2010년 321억여원에서 2013년 220억원으로 3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는 2014년 한 해만 8925억원, 사교육비 억제액은 1조137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수능출제오류를 빌미로 EBS 수능 연계율 70%를 줄이려는 교육당국의 정책기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연계율 70%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EB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만5935명의 시민 중 95%가 수능강의가 수능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68%가 사교육 의존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송병형기자

경찰, '가정·아동폭력' 살인나도 나몰라라

안산 인질범·대구 여친 살인사건 보호요청 무시

신변요청 대응자료 요청했더니 "별도 관리 안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아동폭력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경기 안산 인질범 살인사건에서 시민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결과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2만6247건, 아동폭력 신고는 1만7766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과 처리에 대해 자료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의 전 부인은 사건발생 4일 전에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시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협박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가족이 파출소를 찾았지만 보호 요청은 묵살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88.9%에 이르고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보복범죄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illegible]

"주민들, 안전성 개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도 안 열어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이같이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원안위의 책임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란을 불렀다.

이 위원장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의무는 수명연장 신청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신청에 들어간 월성 1호기에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또 "공청회의 주체는 원안위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송병형기자

IS와의 전쟁 온·오프 확산

오바마 지상군 투입 검토 · 해킹 공격 가세

IS와의 전쟁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 거점 지역에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SNS에서는 IS 추종세력과 반대진영의 해킹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IS에 억류돼있던 미국인 케일라 진 뮬러(2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하던 뮬러는 2013년 8월 시리아 난민을 돕다가 IS에 인질로 잡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인을 대신해 뮬러의 유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미국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뮬러를 납치하고 살해한 테러범들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IS 대응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골자로 한 군사력 동원 권한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표결하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IS는 요르단 군대가 시리아 내 IS 거점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뮬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요르단 군대의 이번 공습은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화형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다만 뮬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IS가 일찌감치 뮬러를 살해하고 그 책임을 요르단에 떠넘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게일라 진 뮬러의 고향 애리조나주 프리스콧에 뮬러 꽃송이 사이로 그를 추모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AP 연합뉴스

◆ IS 온라인 SNS 해킹 전쟁

한편 IS는 온라인으로 공격 무대를 옮겼다. IS 소속을 자청하는 해커들이 주요 언론사와 미군 SNS를 대거 해킹한 것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스위크 트위터 계정은 10일 오전 11시께 해킹 당했으며 10여 분 후 곧바로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 트위터 계정에는 검은 복면을 한 이슬람 전사 모습과 함께 '시이버 칼리페이트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국가)' '나는 IS다'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이는 지난달 초 미군 중부사령부 해킹 당시의 메시지와 비슷하다.

더욱이 IS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검토 중임을 의식한듯 '유혈아 남자된 발렌타인 데이 #미셸 오바마'란 문구와 함께 "우리가 당신은 물론 당신의 딸과 남편을 지켜보고 있다"는 대통령 가족 위협 메시지를 올렸다.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는 반격에 나섰다. IS와 관련이 있는 트위터 계정 800개와 페이스북 계정 12개, 이메일 50개를 해킹한 것이다. 어나니머스는 "지금부터 온라인에서 IS가 숨을 만한 안전한 곳은 없다. 우리가 인터넷을 지배한다"고 경고했다.

/김문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4억8500만 달러, 주인은… 미국의 역대 복권중 세 번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4억8500만 달러(약 5300억원)로 치솟은 가운데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가게 직원이 손님에게 줄 복권을 출력하고 있다. 11일 밤에 예정인 파워볼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1억7500만분의 1로 알려져 있다. /AP 연합뉴스

애플 시총 7000억 달러…세계 처음

태양광발전소를 품에 안은 애플이 세계 증권시장 최초로 종가기준 시가총액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시장에서 애플 주식은 장중 한때 122.15달러에 거래됐으며 전날 종가보다 1.92% 높은 122.02달러로 마감됐다. 이는 각각 장중·종가 신고가다.

이에따라 애플 시가총액은 7107억 4000만 달러(약 781조87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위인 엑슨모빌의 3854억 달러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200조 3271억)보다는 무려 3.9배나 많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미국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 페이'를 승객들이 비행 중 기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 북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승세를 부추겼다.

쿡 CEO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투자회사 골드만 삭스의 기술과 인터넷 회의에서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25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전 규모 280메가와트(MW)인 이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 넓이 1200만 ㎡에 달한다.

애플은 쿠퍼티노에 짓는 새 사옥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다른 모든 사무실과 52개 소매점, 컴퓨터 센터의 전력을 모두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韓 장애청소년 안정훈군 뉴욕서 NBA올스타 특별경기 한국의 청각 장애 청소년이 사상 처음 NBA 올스타의 무대에 참가하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의 지적장애인 교육기관 다니엘고에 재학 중인 안정훈(19)군은 14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리는 제4회 NBA케어즈 스페셜올림픽 경기에 NBA와 WNBA 스타들과 함께 출전한다. /뉴시스

화보 찍고 세배하고

metro HongKong

스타 고양이 '브라더 크림'

홍콩의 새해가 인기 고양이 '브라더 크림'의 안시와 함께 밝았다.

10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브라더 크림(10·忌廉哥)은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다. 홍콩 대표 상권인 침사추이의 편의점 고양이 브라더 크림은 손님을 의식하지 않고 매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애교를 떠는 행동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포동포동하고 도도한 매력이 일품인 브라더 크림은 페이스북 친구 16만명 이상을 거느리고 사진집을 펴낼 정도로 명물이다. 브라더 크림이란 이름은 털 색깔이 크림색이라 붙여졌다.

브라더 크림은 9일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고양이 조각상 개막행사에 참여하고 홍콩인들에게 새해인사를 했다. 브라더 크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거대 조각상은 두 손을 한장하고 있어 마치 팬인들에게 세배를 하는 듯 하다.

빽빽한 일정에 브라더 크림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얌전하고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양이 주인인 기오즈청(祁志成)은 "매일 100명 이상이 브라더 크림을 보러 온다. 자선행사에 참여하면 더 많은 동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정윤희기자

"2050년, 한국 경제 나이지리아에도 뒤진다"

PwC 보고서 충격

앞으로 35년 이내에 한국의 경제 규모가 나이지리아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 ABC 방송은 국제 회계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205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중국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17년, 시장환율(market exchange rate) 기준으로는 10년 뒤인 2027년에 각각 미국을 따돌린다는 설명이다.

인도도 정치경제 개혁 등에 성공한다면 2050년께 미국을 뛰어넘어 2위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쳤다.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흥 경제국인 인도네시아(4위), 브라질(5위), 멕시코(6위) 등도 전통적 경제강국인 일본(7위), 독일(10위) 등을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8위), 나이지리아(9위), 영국(11위), 사우디아라비아(12위), 프랑스(13위), 터키(14위), 파키스탄(15위), 이집트(16위) 등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규모는 이들에 밀려 지난해 13위에서 2050년에는 세계 17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PcW는 "2050년까지 세계 경제가 평균 3%씩 증가해 2037년쯤 세계 총 경제 규모가 현재의 두 배, 2050년 현재의 3배로 각각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나이지리아와 베트남(22위)은 2050년까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우리·하나 '울고' 신한·기업銀 '웃고'

중소기업 대출 전문 은행이 대기업 위주 은행보다 수익성 좋아

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행의 수익성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대기업 대출 위주인 우리·외환은행의 수익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외환은행만이 적자로 전계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4분기 1630억원의 순손실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대한전선 주식 보유분에 대한 감액 손실과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배상금, STX조선 추가지원, 동부건설 법정관리로 충당금 적립의 영향으로 손실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기준 우리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20조2257억원으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분기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향후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간기준으로 볼때는 전년대비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했고 민영화 관련 법인세 환입(6043억원) 효과도 있었다"며 "작년 연간 순익은 1조2140억원으로 지주사 체제였던 2013년 377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3641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17.8% 감소한 것으로 작년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줄어든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

그간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1조6525억원, 2012년 6671억원, 2013년 4443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뉴엘 대손비용 682억원과 외환딱생 관련 손실이 전년보다 912억원 증가해 순익에 영향을 줬다. 외환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16조9350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 또한 모뉴엘 대손비용과 대한전선 주식 손상차손 등으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하며 지난해 연간 당기순익(9377억7000만원)이 전년대비 0.41%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1조320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국민은행(1조290억원)보다 앞선 것으로 대출 연체율 또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0.48%로 낮았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7조3000억원(6.7%) 오른 116조1000억원으로 시장점유율(22.6%) 1위를 자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간 실적은 기술금융 등 중기대출 지원 확대와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구조 개선, 원천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며 "올해에도 기술금융을 선도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한편, 내실성장 지속, 신채널 전략수립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는 연간 당기 순이익 2조 811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대를 달성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은행의 원화자산 성장이 기업, 가계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나면서 연간 8.8% 증가했다"며 "차별화된 리스크관리가 주효해 그룹과 은행의 대손비용이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 급증했다.

다만 은행 순익의 상당부분은 대손비용 감소와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1.7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채대호기자 xiaw3123@metroseoul.co.kr

---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45.70	(+9.84)
코스닥	601.41	(+8.46)
금리	2.06	(-0.01)
환율	10[illegible]	(+7.80)

농협유통 한우 할인행사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축산코너에서 '설맞이 맛있는 한우 조특가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이 한우 등심, 국거리 등을 고르며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현대·KB카드 카드론 금리 인상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삼성·현대·KB국민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되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작년 3~4분기 카드론 평균 적용금리는 상반기인 2분기 평균 금리(연 15.68%) 보다 상승됐다.

삼성카드의 3~4분기 평균금리는 각각 16.17%, 16.35%로 이는 2분기보다 0.49%포인트, 0.67%포인트 증가했다.

현대카드 또한 작년 2분기 연 17.33%에서 3분기 17.72%로 금리를 0.39%포인트 올렸다. 4분기는 17.63%로 3분기 보다 0.09%포인트 떨어졌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0.3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2분기 고객에게 연 14.26% 금리로 대출해줬지만, 3분기(14.75%)와 4분기(14.43%) 금리는 2분기보다 각각 0.49%포인트와 0.17%포인트 상향됐다.

반면 신한카드는 4분기 15.54% 금리를 적용했다. 이는 2분기의 15.86%보다 0.32% 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금리를 가장 많이 낮춘 곳은 농협카드다. 농협카드는 작년 2분기 13.07%에서 3~4분기 각각 12.90%, 12.73% 금리를 적용했다. /박아름기자

작년말 은행 부실채권 감소

산업·우리 높고 씨티·신한 낮아

지난해 국내은행의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든 가운데 조선·건설·해운 등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어 가계여신 2조6000억원(10.9%), 신용카드 채권 1000억원(0.4%) 등이다.

이는 1년 전인 2013년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2011년(18조8000억원)이나 2012년(18조5000억원)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새롭게 발생한 부실채권은 23조원으로 1년 전보다 8조6000억원 줄었다.

고정이하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부실채권비율은 1.53%로, 전년의 1.79% 보다 0.26%포인트 하락했다. 같은기간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2.05%로 0.34%포인트 내려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2.20%와 1.92%로 0.57%포인트와 0.18%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작년중 소폭 하락했으나 2012년말(1.66%)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조선업(5.77%), 건설업(5.72%), 해운업(2.08%) 등 특정 업종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11%포인트 하락한 0.49%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0.42%)과 신용대출(0.67%) 등의 부실채권비율도 각각 0.14%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11%)은 0.23%포인트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다. 또 우리은행(2.10%), 수협(2.05%), 제주은행(2.0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씨티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9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신한은행(1.03%)과 부산은행(1.06)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크게 감소한데다,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전년 수준보다 다소 확대돼 부실채권 비율이 전년보다 하락했다"며 "미국(2.11%), 일본(1.75%)등의 부실채권비율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만큼 잠재적 부실여신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기자

하나은행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김정기 부행장(사진 우측)과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품 기부식을 가졌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미술품 기부식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9일 오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미술품 기부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문화 향유의 저변을 확대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30여년간 수집한 미술품 컬렉션 가운데 1041점을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대한사회복지회와 충주구치소, 공주교도소, 천안교도소 등 교정시설 3곳에 전달했다.

미술품은 이왈종 남관 남농 허건 소천 김현두 남천 송수남 등 국내 작가의 동양화와 서예, 유화, 판화로 구성됐다.

기부된 작품은 문화 소외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교정시설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수형자들의 교화를 위해 전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술품 기부는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더 가까운 곳에서 더욱 친근하게 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부된 미술품 일부는 판매를 통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과 미혼모자의 복지를 위한 재원 조성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은기자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 겸 발행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서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20일 창간 서울특별시 가00336

"좋은 보험설계사 선택이 보험가입보다 중요"

금융가 사람들

■김춘호 한화손해보험 차장

긴 근속기간·지식에 사후 관리도 갖춰야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설계사(FP)를 선택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춘호(사진) 한화손해보험 영업교육파트 차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화손해보험(구 제일화재)에서 20년간 현장영업담당(지점장), 영업교육 담당, 교육 지원단을 맡은 설계사 교육 전문가다.

그는 좋은 설계사의 조건으로 ▲근속기간 ▲보상내용의 지식 ▲계약 후 관리서비스 등 3가지를 꼽았다.

근속기간의 경우 그는 "계약자로부터 접수한 불만 중 70% 이상은 계약 담당자가 사라진 경우"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상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 이들 설계사에게 가입한 계약은 해약을 해 놓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교육한 신인 설계사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에 그만둔다고 말한다.

반면 장기적으로 한 보험사에 오래 근무한 설계사의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경우가 많고 경험이 많다"며 "이들에게 가입한 보험은 상대적으로 계약유지율이 높고 고객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보상내용의 지식은 그가 설계사 교육 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다.

그는 "상품지식을 쌓고 있어야 다양한 재무상태에 있는 고객에게 가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도 한 가지 상품이 아닌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후 관리서비스도 좋은 설계사의 요건으로 꼽힌다.

그는 "아무리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복잡한 계약 내용을 한 번에 숙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고객을 방문, 가입 상품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그는 좋은 설계로 고객과 금전적인 문제가 없는 설계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설계사, 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꼽았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목표로 설계사 교육을 통해 보험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영업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의 효과를 느낄 때는 고객이 어려움을 겪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인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 좋은 설계사를 배출해 보험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사랑의 헌혈' 삼성카드는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본사를 둔 삼성그룹 7개사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제공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완책 대부분이 보험사의 인하 압박인 점을 감안할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최고 90%까지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현재 2700만명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책임을 보험사와 판매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 경우 A사는 위험률을 4%로, B사는 6%로 설정하면 A사는 4% 인상을 적용한다. 하지만 B사는 설계사수수료 1% 인하와 보험사 유지비 2% 인하로 총 3% 인상만 적용된다.

또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비교지수를 공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관리와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 위험보험료는 2조634억원이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2조3667억원으로 114.7%의 손해율을 보였다. 이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119.0%), 2012년(120.8%), 2013년(122.2%)을 보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년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손해율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해 과다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보험사의 보험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우려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사는 판매할 수록 적자가 났다"면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업계의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당국과 업계 간의 조율 등 다양한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동양생명, 작년 당기순익 1644억원 '사상 최대'

동양생명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16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2496억원, 1206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20조42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고, 보장성 중심의 영업활동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식배당도 결정했다. 배당액은 2013년 주당 200원에서 350원 증가한 550원으로 시가배당률은 5.0%다.

한편 동양생명 1대 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보고펀드는 지난 4일 중국 안방보험과 동양생명 경영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영권 매각이 이뤄지면 중국 금융사 처음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다.

/김형석기자

해외 자본 국내 증권사 '야금야금'

현대증권, 日 오릭스에 넘어가… 업계 판도 변화 예고

최근 해외 자본의 국내 증권업 진출이 잇따르면서 증권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자본에 굳게 닫혔던 빗장마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최근 일본 오릭스그룹이 주축이 돼 구성한 사모펀드(PEF)인 오릭스PE를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현대상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22.6%와 동반매각권을 가진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 지분 9.5%, 나티닉스은행 지분 4.7% 등 총 36.9%다. 매각 가격은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매각이 완료될 경우 현대그룹의 실질 현금유입 규모는 일부 지분 재투자(3000억원)와 현대증권 지분 신탁을 통한 자산담보대출 상환(2000억원)을 차감한 약 11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오릭스는 지난 1964년 소규모 리스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사업부문 2만50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글로벌종합금융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한국에서 저축은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보다 먼저 지난해 3월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옛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했다. 해외자본이 국내 증권가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이기도 하다.

유안타증권은 대만의 금융그룹인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의 계열사로 대만 최대 증권사다. 이번 인수로 유안타증권은 지난 2004년 LG증권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10년 만에 국내 증권업계에 진출하게 됐다. 더욱이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일 주강통 제도가 시작되면서 큰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도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업무계획에서 올해 안에 대우증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연내 KDB대우증권 매각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을 만나 KDB인프라자산운용을 제외한 KDB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 매각을 협의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나 패키지매각 등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고, 좀 더 검토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대상은 대우증권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보통주 43%(약 1억4048만주)다. 증권업계에선 대우증권의 위상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매각 대금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유력한 인수 후보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자본이 국내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대우증권 인수전에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metroseoul.co.kr

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 국내 증권사의 60배 달해

지난해 '매도' 의견을 제시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국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의 60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외국계 증권사 19곳이 발간한 리포트 6420건 중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는 897건으로 13.97%를 차지했다.

리포트 10건 중 1건 이상이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셈이다.

반면 이 기간 국내 증권사 36곳이 발간한 리포트 2만1504건 중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는 15건으로 0.06%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3월부터 '매도' 의견 리포트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한화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가 1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건수만 비교했을 때 국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는 외국계 증권사의 60분의 1 수준이다. 전체 발간 건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으로 치면 차이가 훨씬 크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 리포트 비중은 최근 수년 동안 0.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2만782건 중 7건으로 0.03%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0.02%(5건), 2013년 0.07%(18건)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증권사는 2011년 7.92%(512건), 2012년 10.68%(691건), 2013년 13.10%(802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은 주식 발행 회사나 기관 투자자의 눈치 보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해명한다.

외국계 증권사도 이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리서치 영업 등 부문별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된 편이다.

금융당국이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방안 중 하나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KOSDAQ 601.41 ▲8.46 (1.43%)

코스닥 600선 회복 지난해 ... 그리스 ... 재정위기 ... 저 ...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11일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8.46포인트(1.43%) 상승한 601.41에 거래가 끝났다. /연합뉴스

코스닥협회장에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코스닥협회가 11일 제16기 정기회원총회를 열고, 신경철(사진) 유진로봇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회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은 지내고 있다.

협회는 또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회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홍원식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이사를 신임 감사로 뽑았다.

고광일 고영테크놀러지 대표이사, 김용범 토비스 대표이사, 이동현 오상자이엘 대표이사, 장승국 비즈로넷 대표이사 등 4명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협회는 이날 정기회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협회는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지원 등을 중점 목표로 삼았다. /김민지기자

"게임주 실적보단 성장 가능성 주목"

게임 관련주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 지지부진하다.

전문가들은 게임주들의 지난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했다.

컴투스와 게임빌(10일)에 이어 엔씨소프트, 조이맥스, 위메이드(11일)가 성적표를 내밀었다.

다음카카오, 선데이토즈도 발표 예정에 있다.

실적 발표 직전 게임주들의 주가는 시장의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올랐다.

대표 게임주 중 하나인 컴투스는 지난달 27일 1년래 최고가인 21만5400원을 돌파했다.

게임빌 역시 비슷한 시기인 30일 1년래 최고가인 19만5000원을 기록하며 상승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두 종목이 부진한 성적을 발표하며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컴투스는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319%, 7459% 상승하는 등 선전을 보였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맞돌았다.

게임빌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19억원을 기록했지만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를 맞추진 못했다.

시장의 실망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실적 발표 다음날인 11일 게임빌은 전일 대비 7.36% 하락한 12만9700원에, 컴투스는 6.63% 내려간 16만99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엔씨소프트, 조이맥스, 위메이드도 오름세를 멈추고 혼조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게임주들의 지난 실적보다 미래 성장 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게임빌과 컴투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맞다"고 말했지만 "컴투스는 안정적인 '서머너즈워'의 매출을 기반으로 신규게임 확대에 따른 매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게임빌 또한 지난 1월말 중국에서 출시한 '별이 되어라'를 시작으로 '제노니아온라인', '크리티카' 등 신규 라인업이 준비돼 성장 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작 출시의 성장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한 틈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中企상생 시동

자사의 마케팅 솔루션 역량 접목…글로벌 시장 도전
캐릭터 중소기업 투자사업 본격화…상생기반 확대

이서현 경영전략총괄 사장이 이끄는 제일기획이 중소기업과 손잡고 캐릭터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는 등 상생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광고대행 계열사인 제일기획이 서비스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 수익을 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고민이 더욱 돋보인다.

제일기획은 11일 서울 한남동 본사에서 캐릭터 제작사 부즈클럽과 손잡고 신규 캐릭터 '아둥가' 사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상생경영에 돌입했다. 캐릭터 사업의 경우 언어와 인종의 장벽이 없어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다. 캐릭터산업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창시된 부가가치가 무한하다.

캐릭터를 활용한 새로운 스토리로 장기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매력적이다.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75조원에서 올해 18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예고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졸업한 이 사장은 패션 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캐릭터를 향후 패션과 삼성전자의 IT 등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밝다.

앞서 이 사장은 또 2012년부터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임원진과 정례 전략 회의를 열어 ICT(정보통신기술)와 패션의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일모직은 근거리무선통신(NFC)칩이 부착된 남성 정장 로가디스 '스마트수트 2.0'을 출시해 성공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제일기획은 부즈클럽이 만든 아둥가 캐릭터를 체계적인 마케팅과 라이선싱 등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계획이다.

조경식 제일기획 미디어본부장은 "완성도 높은 캐릭터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캐릭터 비즈니스의 표본을 만들 것"이라며 "효과적 마케팅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캐릭터 제작사, 캐릭터 상품화 회사들과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일기획은 힙합, 악동, 섹시 등을 아둥가의 콘셉트로 잡고 10~20대를 주 타깃으로 한 간접광고(PPL),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을 우선 진행한다.

오는 4월에는 패션 아이템, IT 기기 액세서리, 게임 등 캐릭터 상품을 출시하고 중국,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일기획은 40여년 간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와 소비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 미디어 솔루션 등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캐릭터 사업자들과 협력해 차별화된 캐릭터 비즈니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이사는 국내 광고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수익활로를 넓히기 위해 영국의 광고회사 '아이리스'를 인수합병하는 기업의 체질 개선작업에 앞장섰다.

아울러 제일기획은 중소캐릭터 개발업체의 수익 활로를 넓혀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이들과 상생기반을 다질 수 있는 비즈니스 다각화로 동반성장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혜림 제일기획 홍보팀장은 "아둥가 캐릭터사업을 시작으로 중소업체 발굴-양성-수익 환경 조성까지 캐릭터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수익 구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제일기획은 잠들어 있던 캐릭터를 상품화 시킬 통합 솔루션으로 상품마케팅, 라이선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을 통해 중소업체는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일기획은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했다는 차원에서 윈-윈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기자 fun@metroseoul.co.kr

독일서 디스플레이 친환경·화질 기술 검증

삼성전자, 모니터와 사이니지 모델 검증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기업간 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5 에서 독일의 전문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과 야외 시인성 관련 기술을 검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SE650' 모니터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비전력을 0.00와트(W)로 낮추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저감 관련 'Eco Power Off' 검증을 받았다.

모니터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0.00W로 줄여 사실상 전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친환경성을 향상시킨 점이 특징이다. 일반 모니터는 전원을 꺼도 0.3W 정도 전력을 계속 소모한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적용한 기업용 비즈니스 모니터 신모델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SE 2015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수상식을 갖고 TUV 라인란드로부터 검증서를 전달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패트릭 부르만(Patrick Booman) TUV 라인란드 디렉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최용훈 상무, 안드레 아도니(Andre Adonyi) TUV 라인란드 매니저.

삼성전자의 스마트 사이니지 아웃도어 모델 2종(OH46D, OH55D)은 외부 환경조건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 시인성을 충족해 'High Visibility Outdoor Performance' 검증을 받았다.

스마트 사이니지 아웃도어 모델은 3000니트(nit) 이상의 높은 밝기와 강한 내구성이 특징으로 야외에서도 콘텐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김보배기자 bbkim@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요"

삼성 직원 봉사활동

삼성이 설날을 앞두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

삼성 임직원 1만여 명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2주간 사회복지시설 1500여 곳과 어려운 이웃 3만8500여 가구를 찾아 10억원 상당의 부식 세트를 전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삼성사회봉사단이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관악구 성현동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동작관악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강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고 명절 음식을 대접했다.

삼성 각 계열사의 110여 개 사업장에서도 설 희망나눔 봉사활동기간에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찾아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자매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한다.

지난 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임직원들이 경기도 화성시의 나래울복지센터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임직원은 22일까지 용인·화성지역 사회복지시설 54곳을 찾아 명절 선물을 전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22개 자매마을 노인들에게 떡국을 만들어 대접하고 자매마을 과일을 구입해 천안·아산지역 3천여 저소득 가정에 전한다.

2008년부터 실시한 삼성의 명절 희망나눔 활동으로 현재까지 145억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했다.

/김보배기자

삼성전자 중남미 시장 공략

모나코서 SUHD TV 전략제품 소개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삼성 중남미 포럼'에서 중남미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미엄 TV인 SUHD TV를 비롯한 다양한 2015년 전략제품을 소개했다.

SUHD TV는 독자 화질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기존 TV보다 최대 2.5배 밝고 64배 뛰어난 색상 표현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TV다.

삼성전자는 21 대 9 화면비율의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 'SE790C', 2800만 고화소에 4K(4096X2160)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미러리스 스마트카메라 'NX500'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선보였다.

김정환 삼성전자 중남미 총괄은 "삼성전자는 올해 중남미에서 SUHD TV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중남미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역 특화 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유럽 포럼을 시작으로 대륙별 전략제품 소개행사인 삼성포럼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김보배기자

LG세탁기 중국서 10초에 1대꼴 생산

LG전자는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누적 기준 3000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1995년 12월 세탁기 생산을 시작한 난징 세탁기생산법인은 2012년 2월까지 누적량 2000만대를 생산했고 이달 초 3000만대를 돌파했다. 최근 3년 동안 1000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약 10초에 1대 꼴이다. 현재 난징 세탁기생산법인은 국내 창원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탁기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다.

난징 세탁기생산법인에서는 대용량 드럼 세탁기, 전자동 세탁기, DD(Direct Drive)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난징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미국 등 약 90개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엎친데 덮친' 포스코·현대제철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에 탄소배출권 부담까지

정부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700만t인데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t으로 1차 계획연도인 2018년까지 2100만t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t당 1만원의 기준 가격으로 환산하면 2100억원 규모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개별기업 525곳에 개별 배출량을 할당한 뒤 정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기업체는 배당 할당량을 넘길 경우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철강업계 할당량의 77%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몫인만큼 할당량 초과시 이 두 기업의 과징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철강도 골머리다. 중국 당국은 보론(붕소) 함유 철강재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 조치로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증치세 환급 대상인 니켈, 크롬 등을 섞어 수출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꾸준히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철강재는 1228만30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35.7%나 급증했다. 사상 최대 수입규모였던 2008년 1431만t에 육박한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업황도 나쁜데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성장은 엄두조차 할 지경이라는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달 5일 한국철강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제철소는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고로공법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 할당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10일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한 40개 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했으나 철강업계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illegible]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철강 대량 유입에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도 발목이 잡혔다. /현대제철 당진 고로 제공

SKC 반도체소재사업 진출

SKC는 국내 중견기업들과 2년여 동안 공동 개발해 온 반도체공정용 고기능 정밀화학제품 10여 종에 대한 인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중견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강화해 제품 수를 늘리며 동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에 따르면 SKC는 동진쎄미켐, 디엔에프,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국내 중견기업 6곳과 공동으로 반도체소재 제품 10종을 개발했다.

지난해 국내 전자업계의 고객인증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SKC가 취급하는 제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고기능 정밀화학제품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현재 미국과 일본업체의 과점체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다.

/이형일기자 [illegible]

한화케미칼 신입사원 16명 '나눔 실천'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왼쪽에서 첫 번째)와 신입사원들이 10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원장 강호)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요리 음식을 만들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영등포 쪽방촌 떡국나눔 봉사

에쓰오일 CEO,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방문

에쓰오일은 11일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주변 지역 노숙자 등 500여 명에게 떡국을 배식했다.

또 떡국 떡, 쇠고기, 귤, 라면 등 식료품을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5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를 위한 떡국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형일기자

[illegible] 에쓰오일 CEO(왼쪽)가 11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들에게 대접할 떡국을 배식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아시아나항공, 작년 영업익 981억…흑자전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매출액 5조8362억원, 영업이익 981억원, 당기순이익 627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1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27억원(2.0%) 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93억원, 1773억원 늘어 흑자전환한 수치다.

4분기 매출은 1조4869억원, 영업이익은 315억원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사측은 "엔저에 따른 일본노선 출국자 증가 및 중국, 동남아 노선 성장세 지속 등으로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향상됐다"며 "미국 경기 회복 및 IT 서부항만 적체 장기화에 따른 항공화물 수요 증가 등으로 화물 실적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형일기자

현대차, '쏘나타 터보'로 시장공략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해 가속 성능을 끌어올린 글로벌 베스트셀링모델인 '쏘나타 2.0 터보'를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신형 쏘나타 터보는 현대차 독자 기술로 개발된 연료 직분사 방식에 터보차저를 장착한 뉴 쎄타-Ⅱ 2.0 터보 GDi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6.0kg.m의 힘을 낸다. 이는 기존 가솔린 2.4 GDi 모델에 비해 각각 27%, 43% 향상된 것이다.

11일 [illegible] 최대토크 영역을 기존 YF 쏘나타 터보 모델의 1750rpm에서 1350rpm으로 낮춰 일상 주행 시에도 강한 주진력이 발휘된다고 설명했다. 연비 향상 신기술이 적용돼 연비도 기존 YF 쏘나타 터보(10.3km/ℓ)보다 5% 개선된 10.3km/ℓ로 인증됐다.

엔진에 장착된 터보차저는 일정 압력 이상의 압축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흡입압력을 정확히 조절, 엔진 효율을 높이면서도 배출가스는 줄였다.

터보엔진 탑재와 함께 앞바퀴에는 17인치 대구경 디스크 브레이크를 기본 장착해 잘 달리고 잘 서는 자동차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했다.

고성능 주행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주요 공략 대상인 만큼 외관에는 터보 모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앞범퍼 하단의 그물망 문양 등을 채택하고 높아진 출력을 뒷받침할 리어 스포일러, 듀얼 트윈팁 머플러를 새로 적용하는 등 역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

이번 터보 모델 출시로 지난 2월 출시된 LF 쏘나타의 라인업은 2.0 CVVL, 2.4 GDi, 2.0 하이브리드, 2.0 LPi 등 총 5개로 늘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 2.0 터보는 현대차의 고성능 고연비 시리즈 중 고성능 부문 올해 첫 번째 모델"이라며 "젊은 층을 공략해 쏘나타 전체 모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legible] 기자

신한금융그룹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삼성, 반도체 공급망 확대…성장세 이을 듯

차기 아이폰에 모바일 D램·AP 모두 공급 전망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올해도 순조롭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LSI 사업 양측에서 애플에 모바일 D램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까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폰6는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은 반도체 업체에는 좋은 기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차기 아이폰에 20나노급의 2기가바이트(GB) D램을 채택할 방침이다. 애플은 아이폰6에까지 1GB를 고수했을 정도로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것에 인색했지만 차기 아이폰에는 용량을 1GB에서 2GB로 늘리고 성능 역시 DDR3(Double Data Rate 3)에서 DDR4로 높아진 메모리를 사용할 전망이다.

현재는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애플에 모바일 D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들 중 20나노 모바일 D램 기술력을 갖춘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반도체 미세공정은 숫자가 낮을수록 칩의 크기는 작아지고 소비전력 효율은 좋아지기 때문에 20나노와 20나노급은 성능에서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20나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Gb) LPDDR4(Low Power DDR4) 기반의 2GB 모바일 D램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20나노 공정의 8Gb LPDDR4 모바일 D램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활용하면 모바일 D램 최대 용량인 4GB를 칩 4개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20나노 8기가비트(Gb) LPDDR4 기반 4GB 모바일 D램 /삼성전자 제공

이 때문에 애플은 올해부터 삼성전자 단독으로 모바일 D램 전량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업체에서 2GB 모바일 D램을 양산하고 있지만 성능과 전력 효율을 고려한 최고 사양의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AP인 A9 역시 삼성전자가 위탁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애플 아이폰 5S의 AP인 A7과 아이폰 6·6플러스의 AP인 A8에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제품이 대부분 납품됐다.

그러나 미세공정 부분에서 진화된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반도체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면서 TSMC의 독점구조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현재 16나노 칩을 생산하고 있어 크기와 소비전력이 중요한 모바일 AP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앞선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20나노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기자 hjune4040@metroseoul.co.kr

'똑똑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만든다

LG유플러스, 안전한 어린이집 확산 위한 업무체결

LG유플러스는 유아 보육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은앤은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보육 업무의 효율화 ▲IPTV를 통한 스마트 교육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향점으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에 나서게 된다. '어린이집 맞춤형 패키지'도 함께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보육업무 효율화는 은앤은정보시스템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이 회사는 어린이집 전용 회계 솔루션부터 아동관리, 운영관리 등 보육 업무 전반을 전산화한 '길음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어린이집 특화 IPTV인 tvG 키즈(가칭)를 개발해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tvG 키즈는 어린이집 맞춤형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이 더 쉽고 편하게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안전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LTE 블랙박스를 이용한 차량 관제 솔루션과 CCTV도 제공한다.

LTE 블랙박스 차량 관제 서비스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블랙박스를 탑재, 차량 위치와 운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히 CCTV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이은재 엔터프라이즈2부문장(전무)은 "이번 제휴로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교사분들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겐 스마트 교육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후후, KT 스마트홈폰에 스팸정보서비스 제공

KT CS는 KT 스마트홈폰에서 통화플랫폼인 후후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한 스팸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KT 스마트홈폰은 전화 기능과 함께 TV보기, 음악듣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형태의 집전화다.

그동안 후후의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스마트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KT 스마트홈폰에 후후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스마트홈폰을 사용하는 가정과 업소에서도 스팸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팸전화 식별, '발신자 정보확인', '이용자 공유정보' 등 후후의 핵심적인 기능이 모두 제공된다.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KT 스마트홈폰에서 무료로 자동 업데이트된다.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내달부터는 전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단말기 모델은 스마트홈폰HD와 스마트홈폰mini(미니)다.

/유선준기자

장동현 SKT 사장,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취임

장동현(사진) SK텔레콤 사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에 취임했다.

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0회 이사회 및 제29회 정기총회를 열고 16대 회장으로 장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협회는 ICT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시장을 만들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및 회원사 마케팅 지원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통신시장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선준기자

삼성전자, SKT에 IoT용 네트워크기술 공급

LTE 코어 네트워크 사업 단독 공급사로 선정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함께 네트워크기능가상화(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기술을 적용한 LTE 코어 네트워크(vEPC: Virtualized Evolved Packet Core) 상용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의 IoT(사물인터넷) 전용 LTE 코어 네트워크 사업의 단독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IoT 서비스 전용의 상용망을 2015년 상반기 중 국내 최초로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NFV 솔루션은 국내외 다수의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된 기술 평가에서 성능과 기능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NFV 기술은 기존 별도의 하드웨어로 동작했던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로, 유연한 네트워크 운용과 신속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고 투자비, 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종봉 SK텔레콤 네트워크부문장은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진행한 NFV 기반 LTE 코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IoT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며 "NFV 기술 확대 적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품질 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은 "NFV 기술은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관리·운용·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신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설 당일 대형마트 문연다

주요 백화점은 쉬어

설 연휴기간 백화점은 설 당일에 쉬고 대형마트는 대부분 문을 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부산본점은 설 당일인 19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인 23일 휴점한다.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중국인 매출 구성비율이 높은 3개점은 설 연휴에 하루만 문을 닫는다. 이들 3개점 외 다른 전국 점포는 18~19일 이틀간 휴점한다. 파주점, 이천점 등 아웃렛 14개점은 19일 하루만 쉰다.

현대백화점은 설 연휴에 점포별로 이틀씩 휴점한다. 점포별 상권을 고려해 휴무 일정을 정했다고 백화점은 설명했다. 6개점은 설 전날과 당일, 7개점은 설 당일과 다음날 문을 닫는다. 날짜별 휴무 점포를 보면 18~19일 무역센터·천호·킨텍스·대구·울산 동점, 19~20일 압구정본·신촌·미아·목동·중동·부산 동구점이다.

신세계백화점 전 점포는 설 전날인 18일과 설 당일인 19일에 휴점한다. 백화점 측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측에 제수용품 수요를 양보하는 취지에서 2013년 추석부터 정기 휴점일을 명절 다음 날에서 명절 전날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전체 152개 점포 중 112개 점포가 설 당일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 가운데 122개 점포가 설 당일 문을 연다. 롯데마트는 19일 전체 113개 점포 중 91개 점포가 영업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설 연휴 전국 주요 백화점·할인마트 휴무일

▲롯데백화점 (18~19일) 전국 점포 휴무(본점·잠실점·부산본점 19일) ▲현대백화점 (18~19일) 무역센터점·천호점·킨텍스점·대구점·울산점·충청점 (19~20일) 압구정본점·신촌점·미아점·목동점·중동점·부산점·동구점 휴무 ▲신세계백화점 (18~19일) 전국 점포 ▲이마트 (19일) 전국 152개 점포 중 112개 영업 (22일) 105개 점포 휴무 ▲홈플러스 (19일) 전국 140개 점포 중 122개 영업 (22일) 103개 점포 휴무 ▲롯데마트 (19일) 전국 113개 점포 중 91개 영업

홈플러스 제수용품 가격 전년수준 동결 11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물가안정 기원 의미 차례상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 설 명절 서민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40개 전 점포와 온라인마트의 23개 핵심 제수용품 가격을 지난해 설 대형마트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 주요 선물세트 10~50% 추가 할인, 주요 생필품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홈플러스 제공

60년 만에 색깔 옷 입은 '미원'

신제품 '다시마로 맛을 낸 발효미원' 출시

지난 1956년 출시된 국산 1호 조미료 '미원'이 환갑을 앞두고 색깔을 갈아 입었다.

대상은 '발효 미원'에 식물 타원 신제품 '다시마로 맛을 낸 발효미원'(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존 '감칠맛 미원'의 이름과 용기 디자인을 바꾸고,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를 고려해 부드럽고 깔끔한 감칠맛을 담은 '발효 미원'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신제품은 맛에 이어 '새하얀' 미원의 색깔까지 바꾸며 대대적인 리뉴얼을 감행한 것이다.

'다시마 맛 발효미원'은 짜고 깔끔한 과립형태인 기존 발효미원과 달리 연녹색을 띠는 둥근 모양이다. 다시마 함량이 19%로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용기 역시 연녹색 바탕에 다시마의 진한 녹색을 포인트로 줬으며, 미원의 상징인 신선로 로고를 붉은 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해 천연 발효 이미지를 강조했다.

한때 '어머니의 손맛'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원은 오랜 세월 조미료의 대명사로 통했다.

1950년대 대상그룹 창업자인 임대홍 회장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타민산' 제조 방법을 배워와 지금의 대상그룹 모태인 '동아화성공업'을 설립하고 미원을 만들었다.

어떤 음식이든 미원을 조금씩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는 입소문으로 당시 국산 조미료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았으며, 미원선물세트는 1960년대 최고의 명절 선물로 꼽히기도 했다.

미원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1200억원 가량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400억원 이상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소매 판매 매출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여 년간의 증가세에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서지원기자 jw@

현대百, 디큐브시티 운영권 인수 추진

현대백화점(회장 정지선·사진)이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시티 운영권 인수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디큐브시티 백화점 운영권 확보를 위해 최근 대성산업에서 디큐브시티 백화점을 인수하기로 한 JR자산운용 펀드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현대백화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통상적인 수준인 10~20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측은 현대백화점이 운영을 맡는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계약 기간, 임대료 등 세부조건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요 조건에는 합의가 됐으며 현재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이 서울 서남권 상권의 핵심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인근 롯데·신세계·경방타임스퀘어 등 주요 쇼핑몰·백화점들과 일대 격전이 불가피하다. /김보라기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철저히 준비"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이 이달 출범이 예정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상황 점검에 직접 나섰다.

신 회장은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현장을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창조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 회장은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창조경제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롯데그룹과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지역 경제 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에서 쌓아온 롯데의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신사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저변 확대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계속 유지해야"

소상공인 대법원에 탄원서

소상공인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성동구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의 제정취지보다는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규정한 문구 자체에만 집중한 판단"이라며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보라기자

정부, 홈쇼핑 불공정행위 근절 나선다

TV홈쇼핑 업자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등은 11일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장이 TF의 팀장을 맡는다. 중기청은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사업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또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춘절 특수’… 10만 요우커가 몰려온다

면세점·명동 등 관광 상권 중심 마케팅·인력 충원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패션·뷰티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고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략 상품을 별도로 구성해 판매하는 등 춘절 마케팅은 이제 업계 주요 행사가 됐다. 특히 업계들은 면세점 채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궁중화장품 브랜드 '후'를 내세워 관광객을 공략한다.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가격대별로 면세점 화장품 세트를 기획해 판매하고 후 에센스 화장품 구매시 5종 증정용 세트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열고있다. 후 천기단 화현 3종 세트는 지난해 춘절 시즌에 이어 올해도 한 달간 약 3만개가 팔릴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면세점에 입점된 브랜드 별로 중국 고객 맞춤형 기획 세트를 구성해 판매한다. 설화수는 중국인 선호도가 높은 진설 라인 기획세트를 강화하고 라네즈는 비비쿠션과 시트 마스크 신제품을 출시한다. 또 아이오페는 에어쿠션을 주력으로 내세운다.

명동, 동대문, 가로수길 등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상권에서도 춘절 마케팅을 벌인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샤, 에뛰드하우스 등 브랜드숍은 명동 등 관광객 매출이 높은 상권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주로 찾는 상품을 전면 배치하거나 물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13일부터 빈폴, 갤럭시, 구호, 에잇세컨즈 등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홍바오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바오에 돈을 넣어 전달하면 축복을 더해는 의미가 있다. 홍바오 안에 상품 교환권을 넣어 등수에 따라 해당 상품을 현장에서 바로 교환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평소의 2배 수준으로 충원해 배치키로 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직영점과 백화점 매장에서 8.8折(12% 할인) 프로모션을 28일까지 실시하고 특별 제작된 기획 상품을 소진 시까지 내놓는다.

설화수 롯데 본점 면세점 매장 모습 /아모레퍼시픽 제공

업계 관계자는 "18일부터 24일까지 춘절 기간 약 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에 직원들에게 향미를 구해 휴무를 늦추고 지원 인력풀을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 중국인이 몰려오는 대목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0215@metroseoul.co.kr

농심 츄파춥스 초코듀오 / 롯데 샤롯데

사탕이야? 초콜릿이야?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이색 초콜릿 제품 출시 봇물

밸런타인데이(14일)를 앞두고 이색 초콜릿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는 막대사탕을 닮은 제품부터 속을 헤이즐넛 크림으로 채운 초콜릿까지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샤롯데'를 출시했다. 샤롯데는 형태에 따라 봉 초콜릿 6종, 미니초콜릿 3종, 판초콜릿 4종 등 총 13종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구슬 모양의 샤롯데 볼은 초콜릿 속에 헤이즐넛 크림이 들어있어, 넛츠향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맛볼 수 있다. '샤롯데 미니'는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카카오함량에 따라 40%, 55%, 70% 세 종류가 있다.

농심은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츄파춥스 초코듀오'를 내놨다. 캔디 브랜드 츄파춥스가 70년 전통의 이탈리아 초콜릿 제조사 '리이카'와 협업해 출시한 제품이다. 츄파춥스 초코듀오는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으로 둘러싸인 셸(알) 형태다. 속은 달콤한 초콜릿 크림과 시리얼로 채워져 있어 부드러움과 바삭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맛은 헤이즐넛과 딸기맛 두 종류다. /채신화기자 csh9@

에쎄 미러팩 한정판

KT&G는 초슬림 캡슐담배 '에쎄 체인지'가 누적판매량 40억 개비 돌파를 기념해 한정판 제품을 한 달 동안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제품은 기존 에쎄 체인지와 맛은 같으며 패키지에 캡슐이 터지는 모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미러 렌즈 캐틴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니코틴과 타르 함량은 기존제품과 같고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헤라, CC라인 3종 출시

헤라는 컴플리트 케어 메이크업 CC라인 3종을 출시한다.

CC 라인은 3종 제품은 기존의 메이크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스킨케어를 바르는 듯한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감을 선사한다. 또한 피부 천배도를 높여주는 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하루 종일 화사한 피부 빛과 깔끔한 피부 톤을 선사한다.

'CC크림'과 'CC크림 시티디펜스'는 2월 먼저 출시되고 'CC 스무딩 팩트'는 다음 달 선보인다.

특급호텔서 ‘달콤한 하룻밤’ 어때요?

신라스테이 동탄

설 맞이 다양한 패키지

최대 5일까지 쉴 수 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특급호텔들이 다양한 패키지 서비스로 손님 잡기에 나섰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양들의 휴식' 패키지를 17일부터 22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에는 디럭스 또는 비즈니스 룸에서의 1박,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 등이 포함됐다. 분홍색 털의 양 모양 베개 세트도 선물로 제공된다. 조식과 함께 로비 라운지에서 전통 차와 떡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이 들어있는 '양들의 휴식-꿀' 패키지 가격은 21만원이다.

신라스테이 동탄은 설 패키지를 16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특급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조식 2인, 영화 티켓 2매, 아베다(AVEDA) 기프트 세트로 구성됐다. 14만 9000원. 조식으로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떡국을 맛볼 수 있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도 일상에서의 힐링을 위한 설 패키지를 같은 기간 선보인다. '딜라이트 서울' 패키지는 기본 공통 혜택을 포함한 디럭스룸 1박, 객실 내 한과 6조각, 식혜 2인 제공 등으로 구성되며 13만원부터다. '복슬복슬' 패키지는 공통 혜택과 함께 디럭스룸 1박, 2인 무료 조식, 메가박스 무료 영화 표 2매, 양 인형 선물 등으로 구성되며 17만원부터 시작한다.

롯데호텔서울은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는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15~18일 이용할 수 있는 '해피뉴 Ⅱ' 패키지는 객실 2박과 설화수 스파 프로그램 60분 1인 1회로 구성되며 가격은 30만원이다. 조식과 애프터눈 티,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클럽라운지 2인 이용 혜택이 추가되는 상품은 40만원에 판매된다. /최보라기자 bora5853@

경쟁사 비방광고 락앤락에 시정명령

락앤락이 경쟁사업자 제품이 현저히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락앤락이 인용한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사고가 증가 추세인지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지난 2013년 11월에 중단됐지만 시정명령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폐용기 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당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0215@

겨울철 '닭살' '뱀살' 조심

건조한 환경으로 수분 빼앗겨 발생

다른 계절보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여드름이나 안면홍조 등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건조한 환경이 피부 수분을 빼앗아 발생하는 살결의 변화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결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닭살'과 '뱀살'이다. 닭살과 뱀살은 건조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닭살은 모공각화증이라는 질환이다. 피부를 보호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각질이 과도하게 생겨 각질 마개를 형성, 각질 마개가 털구멍을 막으면서 오돌토돌한 돌기를 만드는 것이다. 주로 팔이나 허벅지 등에 수로 나타나며 모낭에 박힌 각질 마개 때문에 모공 주위가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비늘증이라고도 불리는 뱀살은 팔과 다리를 중심으로 피부가 뱀 비늘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피부 각질층 아래에 있는 과립층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각질 탈락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특히 뱀살은 손을 자주 대면 감염으로 인한 2차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살결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실내습도를 50~60% 사이로 유지해야 하고 샤워는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샤워를 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해야 하며 샤워 후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야 한다. 각질이 눈에 보인다고 때를 미는 목욕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비누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방순 에스앤유 김방순 피부과 원장은 "닭살 증상이 심하다면 각질 용해제나 비타민A 연고를 바르면서 보습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뱀살이 걱정된다면 젖산 성분과 함께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크림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KGB택배 제공

'택배기사 실명제' 구축

KGB택배, 모든 배송기사 명찰 부착

KGB택배가 '택배기사 실명제'를 최근 구축했다.

실명제는 택배기사들이 의무적으로 신분증 형태의 명찰을 유니폼에 부착하는 시스템으로 명찰에는 소속과 사진, 성명과 연락처 등 기사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다.

회사는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택배기사를 위장한 범죄들 사전에 대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사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기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KGB택배는 현장 중심의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푸르밀, 국내 최초 '허니렌틸콩우유' 선보여

'제2의 검은콩우유' 열풍 기대

유가공 전문기업 푸르밀(구 롯데우유)은 국내 유업계 최초로 렌틸콩 소재 가공유 '허니렌틸콩우유(900ml-사진)'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제품은 간편하게 필수영양소를 섭취해 아침 대용식으로 가능하며 편리하게 슈퍼푸드인 렌틸콩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삶은 렌틸콩과 우유를 활용해 직접 만드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면서 보다 간편하게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건강에 좋은 국내산 벌꿀을 함유해 아이들 영양 간식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렌틸콩은 한국의 김치, 그리스의 요구르트, 스페인의 올리브유, 일본의 낫토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슈퍼푸드로 양면이 볼록렌즈 모양을 따라 렌즈콩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나나의 12배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자 고단백식품으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미네랄의 일종인 폴리브덴(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330%)의 함량이 높아 한알 물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으로 전환,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니렌틸콩우유는 할인점과 슈퍼 등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2400원(할인점 기준)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강강술래 "설 선물 알뜰 장만하세요"

한우·양념갈비 최대 50% 할인…13일 오전 10시 택배마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한우·양념갈비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택배 마감일인 13일 오전 10시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 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 7팩-14인분) 3만6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판매한다.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도 11만원에 선보인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9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 술래식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10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 14만원, 한우찜갈비1호(2.4kg/냉동) 19만원에 내놓는다.

한우정심1호(국거리 불고기 등심 각 0.7kg-15만원)와 한우명품1호(등심1.4kg 안심0.7kg-24만원)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에는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가스치환(MAP) 포장'을 도입했다.

모든 정육세트에는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과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 외부의 열을 이중으로 차단해 아이스팩의 냉을 모래 유지시키는 3중 포장방식을 적용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변질 위험을 줄였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몸 안의 독을 없애는 135개 요리를 소개하는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과 세계2위 디자인센터 협회 백승훈의 해외영업부장인 저자의 실전비즈니스 노하우를 담은 '나는 세계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갈컷의 추천도서도 증정한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제공

상반기 직업훈련생 897명 모집

중부기술교육원 20일까지

지난해 취업률 89%를 넘은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

교육원은 오는 20일까지 총 897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비아비부이나 경력단절 여성, 비진학 고졸자를 포함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서울시 인력수급이 부족한 분야와 창업이 가능한 분야인 ▲피부관리 ▲수열리디자인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21개 학과에서 취업에 필요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수강료와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가 무료이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교육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jh[illegible]edu.or.kr)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 361-5800 120

/황재용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 유령도시 오명 벗을까

5년 만에 공급 재개 ·· 올해 3656가구 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라지고 웃돈 붙기도

한때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세난과 맞물려 비어 있던 아파트에 속속 입주가 이뤄진 데다 부족했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면서 신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 덕분이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3㎡당 980만원이던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는 12월 1211만원으로 1년 사이 23.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분양도 743가구에서 447가구로 줄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청라롯데캐슬과 청라더샵레이크파크 물량만 남아 있을 뿐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부동산3법이 통과되고 1월 들어 상당부분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줄거나 사라진 상태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단지들의 경우 2010년 입주 직후만 해도 최고 7000만~8000만원이 빠진 가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 왔다.

인근 부동산 대표는 "층이나 호수공원 조망권 조망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분양했던 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 낮추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손실 폭이 크게 줄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하나금융타운 기공식이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에서 개최됐다. 청라 부동산 시장은 각종 호재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에는 일부 웃돈이 붙어 있기도 하다. 3억7000여만원에 분양된 청라 호반베르디움4차 84㎡는 지난해 9월 4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제외하곤 아직 분양가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치에 따라 1000만~1500만원 오른 단지들도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은 "발코니 확장비, 대출 이자,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1000만원을 받아도 손해"라면서도 "마이너스였던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복세는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망 개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이 크다.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이어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직선화 도로까지 뚫리며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 중앙호수공원까지 개장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70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할 하나금융타운이 지난해 10월 착공했고, 신세계복합쇼핑몰과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 등의 개발계획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각종 호재에 힘입어 5년 만에 분양도 재개된다. 청라에서는 2010년 1월 '청라 상록 힐스테이트'와 '청라 힐스테이트'를 마지막으로 분양이 끊겼었다.

올해만 5개 사업장에서 365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청라 골드클래스2차'를 시작으로 3월 계층 주거단지인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4월과 5월 '제일풍경채2차'와 '대광로제비앙'이 분양된다. 하반기에는 모아미래도가 분양 계획을 갖고 있다.

/박선옥기자

대학가 전셋집 구하기 '별따기'

월세 전환 잇따라

대학가는 요즘 개강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특히 입학을 앞둔 신입생과 타지에서 온 재학생들은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가에서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월세 시대에 발맞춰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여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의 유입도 많아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이 달려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문동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당 356만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인 반면 전세가는 252만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올랐다. 흑석동 아파트 ㎡당 전세 시세도 지난 6일 기준(한국감정원) 464만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50만원 가량 상승했다.

대학가 세입자들은 가격이 올라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가는 월세의 변동이 잦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문동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박모씨(32)는 "작년까지 전세로 살다가 올해 월세로 전환했다"며 "월세가 부담이 돼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2년 전과 비교해 가격도 올랐지만 일단 전셋집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흑석동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낫다. 흑석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흑석한강푸르지오나 센트레빌 등에 전세 물건이 꾸준히 있으나 월세가 훨씬 많다"며 "대학 수요에 전세난 분위기까지 겹쳐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예 주택을 구입해 싼 가격으로 세를 놓거나 연 2% 고정금리 장기주택담보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나섰다. 직장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다 빚이고 그마저도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취업준비생 부모소득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림동에 사는 김모씨(30)는 "집주인 눈치에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몇십만원 받으려다 더 크게 당할 수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대학가에서 월셋집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집주인"이라며 "이사를 간 후에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씨의 말처럼 집주인과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세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정 청구는 5년기한으로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행정절차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집주인은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대부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를 골라 받더라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김학철기자

롯데월드몰 직원 '안전지킴이' 나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1층 광장에서 11일 롯데월드몰에 근무하는 직원 1300여 명이 고객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고자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롯데물산 제공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백지화?

경기도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안이 논란 끝에 결국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조례안을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 의결을 주도한 새정치연합은 2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보류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앞서 국토부의 권고안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에 대해 0.9%에서 0.5%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0.8%에서 0.4%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거래가의 0.5% 이내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가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협의 없이 무조건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개업소 간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부동산 중개협회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도의회와 해당 상임위에 비난여론과 항의가 빗발치면서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박선옥기자

metro entertainment

"내 안에 아웃사이더 기질 있다"

영화 '쎄시봉' 진구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요. 제가 1등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 2등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순위권에서 떨어지겠다는 고집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웃사이더라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진구(34)는 '쎄시봉'에서 연기한 30대 이장희와 많이 닮았다. 함께 호연한 배우 김윤석·조복래가 가수 윤형주·송창식의 20대 시절을 재현하는 느낌이라면 진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20대의 이장희를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진구의 존재감은 묘하게 남는다.

그러나 정작 진구에게 이장희는 연기하기 쉬지 않은 캐릭터였다. 인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연기한 정우와의 호흡 덕분이었다.

"첫 촬영이 강의실에서 오근태(정우)가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정우의 연기를 보면서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호흡이 척척 맞았죠. 이렇게까지 대본을 안 보고 연기한 건 '쎄시봉'이 처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대사와 행동 등 모든 걸 계산하고 현장에 갔다면 이번에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연기했어요."

장발과 콧수염 등의 분장도 캐릭터 표현에 큰 도움이 됐다. "영화 속 이장희의 50%는 정우가, 나머지 50%는 콧수염이 만든 것"이라는 진구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다.

진구는 영화 속 이장희에 대해 "실제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근태의 하숙집에 얹혀사는 편안한 모습도 평소 모습과 가깝다고 했다. 그는 "이장희를 통해 밝고 가벼운 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완성된 영화는 예상보다 이장희가 멋있게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물론 이장희와 다른 점도 있다. 아웃사이더 기질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얼마 전 아내의 임신 소식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던 진구는 "아기도 곧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생긴다"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이장희 만든 건 상대배우 정우 덕
자유로운 영혼 실제 모습과 닮아
조금씩 변하며 죽을 때까지 연기

덕분에 배우로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관에 연기에 대한 생각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여유로운 변화는 최근 진구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적'과 '명량' 그리고 '쎄시봉'까지 진구는 재난계부터 역할 비중에 상관없이 존재감 있는 역할로 스크린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다. 물론 그는 "특별출연이나 우정출연은 아무래도 현장을 즐길 수 없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작품을 통해 진구가 나름의 변신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진구는 오는 상반기 중 또 한 편의 영화로 스크린을 다시 찾을 계획이다. 최근 촬영을 마친 '연평해전'이다. "이장희를 연기하고 바로 다음에 찍어든 작품이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장난기 어린 느낌은 덜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웃음)" 그렇게 진구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연기하고 싶어요. 물론 의도해서 과한 변신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센세이션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거든요. 조금씩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별 4개 정도의 만족도를 얻고 싶습니다. 별 5개 만점의 연기요? 그건 다음 작품에 부담이 되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디자인/최미정

star bag

데뷔 첫 라디오 DJ 도전

가수 홍진영이 12일부터 15일까지 SBS 파워FM '호란의 파워FM' 특별 진행을 맡는다. 데뷔 후 처음 라디오를 진행한다. '호란의 파워FM'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된다. 홍진영 특유의 상큼한 매력이 호란에 버금가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춘절 특집방송 출연

가수 백지영이 12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중국 후난위성TV와 '춘제완후이'에 출연한다. '춘제완후이'는 중국 춘절 특집 방송이다. 백지영은 한국 대표 스타로 초대받아 주걸륜·장학우 등 중화권 톱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히트곡 '총 맞은 것처럼' 을 라이브로 부를 계획이다.

이상순과 작업 '산책' 발매

가수 양희은이 '이효리 남편' 이상순과 작업한 노래 '산책'을 12일 정오 공개한다. 양희은의 디지털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 세 번째 곡이다. 대중가요에서 쉽게 듣기 힘든 이국적인 사운드가 특징이다. 양희은이 가진 자유의 매력을 극대화한 감성적인 곡이다.

'결혼 터는 남자들' MC

뮤지컬배우 손준호가 MBC에브리원 '결혼 터는 남자들' 진행을 맡는다. '결혼 터는 남자들'은 결혼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한 뒤 함께 고민하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그는 아내 김소현·아들 손주안과 SBS 예능프로그램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하면서 예능감을 보였다. 24일 오후 11시 첫 방송.

아이돌 래퍼 무시하면 '큰 코'

블락비 지코·아이콘 비비·EXID LE·AOA 지민 실력 인정 맹활약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아이돌 래퍼들이 맹활약 중이다. 블락비의 지코, 아이콘의 비비, EXID의 LE, AOA의 지민 등이다.

지코는 블락비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언더 힙합신에서 래퍼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래퍼 화나·기리보이·한해·어글리 덕 등이 소속돼 있는 크루 박와힐즈의 일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솔로 앨범 '터프 쿠키'를 발표한 데 이어 '말해 뭐해'를 13일 발표했다. 데뷔 후 4년 동안의 행적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전적인 내용을 담았다.

EXID의 LE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아이콘의 멤버로 데뷔를 앞둔 바비는 엠넷 '쇼미더머니3' 우승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있다.

이선 당시 대형 기획사 연습생이란 이유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무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도끼·더 콰이엇과 손잡고 담담히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언더힙합신 유명 래퍼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더 주목 받았다. 이후 바비는 에픽하이의 노래 '본 헤이터' 피처링에 참여하며 선배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걸그룹 EXID의 LE는 작사·작곡 능력은 물론 뛰어난 래핑 실력까지 갖췄다.

2012년 데뷔 후 약 3년 정도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LE는 EXID의 이름을 걸고 2013년 엠넷 '쇼미더머니2'에 참가했지만 안타깝게도 2차 예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위아래'로 이름을 알리기에 성공한 LE는 지난해 임창정의 '임박시'와 함께 솔로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당시 임창정은 "최근 활동 중인 걸그룹 래퍼 중에 최고 실력자"라며 극찬했다. 또 LE는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현아의 '블랙리스트' 등의 노래에 함께 한 바 있다.

걸그룹 AOA의 리더 지민은 래퍼로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 엠넷 여성 래퍼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한 것이다.

지민의 캐스팅 소식에 일각에선 아이돌이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나 지민은 100초 싸이퍼(한 비트에 래퍼들이 돌아가며 랩하는 것) 미션에서 우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언프리티 랩스타'의 프로듀서로 나선 지코는 "지코가 석자인데 감히 나를 평가해. 이 부분이 인상 깊었다"며 지민이 쓴 가사의 펀치라인(언어유희)을 높이 평가했다.

아이돌 래퍼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대해 한 레이블 관계자는 "과거 아이돌 그룹에서 노래 실력이 부족한 멤버에게 랩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돌 래퍼들을 안 좋게 보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활동 중인 아이돌 래퍼들 중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많다"며 "래퍼로서 기본적인 작사 능력부터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kimjimin@metroseoul.co.kr

아이콘(iKon)의 바비

MC메타·이현도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

[단독] 엠넷 여성래퍼 서바이벌 프로듀서 자격

래퍼 MC메타(본명 이재현)와 D.O(본명 이현도)가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한다.

11일 한 방송관계자는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MC메타와 이현도가 프로듀서 자격으로 출연했다"고 밝혔다.

MC메타와 이현도는 2013년 엠넷 '쇼미더머니2'에 출연해 각각 '메타크루'와 'D.O크루'를 이끌며 경쟁을 펼친 바 있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리즈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다. 제시(제시카H.O), AOA 지민, 타이미, 치타, 릴샴, 키썸, 졸리브이, 육지담 등 8명의 여성 래퍼들이 출연해 최종 컴필레이션 앨범 트랙을 두고 경쟁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매회 등장하는 힙합 프로듀서들이 만든 신곡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각종 미션을 거쳐야 한다. 지난 2회 방송에서 블락비 지코가 프로듀싱한 '언프리티 랩스타' 첫 번째 트랙은 육지담에게 돌아갔다. 육지담이 부른 '방심지'는 지난 6일 공개됐다.

MC메타(왼쪽)와 이현도

한편 12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언프리티 랩스타' 3회에 등장할 두 번째 트랙 프로듀서는 버벌진트다.

/김지민기자

구혜선 "싸가지 없는 캐릭터는 처음"

KBS2 월화극 '블러드'서 파격 변신

배우 구혜선(사진)이 파격적으로 연기 변신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KBS2 새 월화극 '블러드' 제작발표회에서 구혜선은 "처음으로 싸가지 없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구혜선이 분한 유리타는 태민그룹 상속녀이자 간담췌 외과 전문의다. 정체성이 돋보이지만 막말을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어떤 소년에 대한 환상을 간직하고 있다.

구혜선은 이날 "캔디 같은 역할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꽃보다 남자' 영향이 큰 것 같다"며 "발성을 많이 바꿨고 발음도 신경 썼다. 평소 하이힐을 즐겨 신지 않는데 굽 있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연습 중이다. 눈을 자주 깜박이는 것도 자제하려고 한다"고 캐릭터의 관전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어 "요즘 못 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해 웃음짓게 했다.

구혜선은 '블러드'를 통해 지진희와 '부탁해요 캡틴' 이후 3년 만에 재회했다.

지진희는 "안연어라고 생각한다"며 "호흡도 조언에 어색한 게 없었다. 바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블러드' 잘 될 것 같다"고 연기 호흡을 자신했다.

'블러드'는 국내 최초 판타지 의학드라마다. 태민암병원을 배경으로 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뱀파이어 외과의사의 성장 이야기를 담는다. '굿닥터' 기민수 PD 박재범 작가가 다시 뭉쳐 방영 전부터 화제다. '힐러' 후속 작으로 오는 16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

러블리즈 서지수 합류 잠정 보류해

8인조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사진)가 탈퇴 논란에 휩싸였다.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컴백을 앞둔 러블리즈의 티저 이미지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사진엔 다리가 7명만 있어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상 서지수가 탈퇴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에 소속사는 "이번 활동엔 서지수를 제외한 7명만 활동할 예정"이라며 "서지수는 탈퇴한 것이 아니다. 심리가 안정된 후 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러블리즈 데뷔를 앞두고 악성 루머에 시달려 그룹 활동을 잠정 보류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서지수와 교제했던 사이라며 서지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고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오정연 아나, 전현무와 한솥밥 먹는다

KBS 전 아나운서 오정연(사진)이 SM C&C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SM C&C 소속 첫 여자 방송인이 된 오정연은 강호동·신동엽·전현무·김병만 등 개성 있는 방송인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

오정연은 "앞으로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연은 깔끔한 진행과 단아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효진기자

channel

KIA 한승혁·홍건희 "올해 사고친다"

스프링캠프 청백전서 제구력·커브 약점 보완 '씽씽투'

한승혁

KIA 기대주로 불린 한승혁(22)·홍건희(23)가 스프링캠프 자체 청백전에서 눈부신 기량 향상을 보이며 올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 지형을 바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11년 신인지명에서 1(한승혁)·2라운드(홍건희)에서 연속 지명된 이들은 그동안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다.

한승혁은 2011년 입단하자마자 수술대에 올라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2년과 2013년 잠시 1군 무대에 얼굴을 내밀었고 지난해 임시 선발과 중간 계투로 나서며 26경기에 출전했다. 시속 150㎞를 넘나드는 빠른 공으로 주목은 받았지만 1승 5패 평균자책점 7.21로 기대에 못 미쳤다.

홍건희는 2011년 시범경기 때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선보이며 리틀 윤석민으로 불렸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2군으로 떨어졌고, 1군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2012년 종료 후 입대했다.

입단 당시 "3~4년 뒤면 KIA 마운드를 책임질 투수들"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이들에게 드디어 시기가 왔다.

한승혁은 10일 일본 오키나와 킨 베이스볼스타디움에서 열린 자체 평가전에서 백팀 선발로 등판해 2⅔이닝 2피안타 1실점, 3탈삼진을 기록했다. "빠른 공을 더 돋보이게 할 제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늘 받았던 한승혁은 볼넷을 내주지 않는 공격적인 투구를 했다.

6일 평가전에서도 최고 시속 145㎞의 빠른 공을 던졌고, 이날 구속을 더 끌어올리며 김기태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

홍팀 네 번째 투수로 등장한 홍건희 역시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다양한 변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홍건희는 이날 직구 구속(최고 시속 140㎞)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다양한 무기를 뽐냈다.

이들의 성장에 KIA 코칭스태프는 흐뭇하기만 하다. 선발, 계투, 마무리 등 어느 보직이든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준기자 in kun@metroseoul.co.kr

日 언론 "한신, 양현종에 눈독"

등판 맞춰 관계자 파견

일본 데일리스포츠가 "한신 타이거스가 최고 시속 152㎞를 던지는 한국인 왼손 투수 양현종(사진)을 관찰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스포츠는 11일 "한신이 24일과 26일 KIA와 히로시마 카프의 평가전에 구단 관계자를 파견한다"며 "한신은 양현종이 히로시마전에 등판한다는 걸 파악했다. 양현종의 구위가 일본 타자에게도 통하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실제로 양현종의 이번 스프링캠프 첫 실전 등판은 24일 히로시마전으로 예정돼 있다.

양현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왼손 투수로 지난해 11월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노렸다. 하지만 포스팅 최고 응찰액이 기대 이하라 구단과 상의 끝에 해외 진출의 꿈은 미뤘다.

양현종은 2016시즌이 끝나야 완전한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올 시즌 뒤에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 '이적료'가 발생한다.

데일리스포츠는 "SK 와이번스 왼손 에이스 김광현도 곧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연다"며 "한신은 김광현과 양현종을 꾸준히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준기자

부상 탈출 윤석영 풀타임 활약 잉글랜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윤석영(오른쪽)이 2014~2015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전에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왼쪽 풀백을 맡은 윤석영은 이날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댔다. 지난해 12월 21일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 발목을 다쳐 출전기회를 잡지 못한 윤석영은 이날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음을 보여줬다. /AP 연합뉴스

태권도와 공연예술의 만남

CJ E&M·K타이거즈,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과 태권도 종합 콘텐츠 회사 K타이거즈가 태권도 문화 콘텐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이덕재 CJ E&M 방송콘텐츠부문장과 안학선 K타이거즈 단장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K타이거즈 사옥에서 태권도 문화 콘텐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크리에이터 그룹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외 태권도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크리에이터 그룹 파트너십은 유튜브 태권도 영상 콘텐츠 확산을 위한 MCN(Multi Channel Network)사업이다.

특히 태권도 공연사업, 태권도 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을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학선 K타이거즈 단장은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태권도와 공연 문화 예술이 결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길 바란다"며 "한류 문화 산업 발전과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확립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호준기자 jeonh 등용

지단 또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 급부상

'마드리드 더비' 참패 치명타

지네딘 지단(43·사진)이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차기 감독 후보로 다시 급부상했다.

미국 ESPN은 11일(한국시간)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최근 부진한 성적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단을 차기 감독 후보로 꼽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8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0-4로 참패했고, 지난달 국왕컵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스페인 언론은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참패한 뒤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선수단을 방문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이후 차기 감독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왔다.

안첼로티 감독은 2013년 6월에 레알 마드리드와 3년 계약을 맺은 상태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위 FC바르셀로나와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

지단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 2군 팀을 지휘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안첼로티 감독을 보좌해 1군 코치를 맡기도 했다.

/김승준기자

"스승 가마 태우고 졸업식장 가요" 11일 충북 ○○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스승을 가마에 태워 졸업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5년째 이어온 이 학교 졸업식의 전통이다. /연합뉴스

'못 믿을' 정부 교육정책

국민 8.7%만 "신뢰"… 2013년보다 1.8%p 하락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여론 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8.7%에 불과했다.

교육 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 때 10.5%보다 1년 만에 1.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매우 신뢰한다'는 0.5%(9명)뿐이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도 8.2%(164명)로 적었다.

반면 40.8%(816명)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선택했고 15.4%(308명)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32.9%(657명), 2.3%(46명)는 '잘 모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른 정보 접근과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신뢰'와 '어느 정도 신뢰' 등 긍정적 응답이 18.0%(358명)에 그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40.7%로 집계됐다.

또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58.9%로 많았고 출신 대학별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64.0%에 달했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선택진료비' 폐지된다

복지부, 2017년까지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그동안 진찰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검사, 마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어쩌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병원의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선택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또 내년까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기존 80%에서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일 경기 고양시 원흥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한복을 입은 아쿠아리스트들이 고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아쿠아플라넷은 설을 맞아 11일부터 20일까지 경품을 증정하는 '대박 설림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서울 인구, 여성>남성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공개한 '2014년 4·4분기 서울 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여성 인구는 512만3469명으로 남성 인구 497만9764명에 비해 14만3697명 더 많았다.

자치구별 성비를 보면 강남구가 여성 30만847명, 남성 27만7267명으로 여성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 반면 금천구는 남성 12만1378명, 여성 11만6955명으로 남성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서울시 등록 인구는 1036만9593명으로 전분기(2014년 3·4분기) 대비 1만6746명(-0.16%) 감소, 전년 동기(2013년 4·4분기)보다 1만8462명(-0.18%) 감소했다.

한국인은 1010만3233명으로 전분기 대비 1만9428명(-0.19%), 전년 동기 대비 4만412명(-0.40%) 줄었다. 외국인은 26만6360명으로 전분기 대비 2682명(1.02%), 전년 동기 대비 2만1950명(8.98%) 증가했다.

총 세대수는 419만4176세대로 세대 당 인구수는 2.41명이었다.

/조현정기자

초·중·고 패스트푸드 섭취율 4년새 10%p 증가

아침 식사 거르는 학생도 늘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6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의 학생 8만25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주일에 1회 이상 햄버거, 피자, 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교 61.4%, 중학교 72.1%, 고등학교 74.3%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3.4%, 중학교 59.6%, 고등학교 62.3%로 조사됐다. 4년 동안 패스트푸드 섭취율이 10%포인트 가량 뛰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교 4.2%, 중학교 12.0%, 고등학교 14.5%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늘었다. 이 비율도 2010년 초등학교 3.9%, 중학교 9.4%, 고등학교 13.4%에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체 발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비만 학생 비율은 15.0%(경도 7.6%, 중등도 6.0%, 고도 1.4%)로 2013년 15.3%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졌다.

비만도는 학생의 체중에 성별, 신장별 표준보다 더 나가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한 것으로 경도 비만은 20~30% 미만, 중등도 비만 30~50% 미만, 고도 비만은 50% 이상으로 구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려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패스트푸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hjo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박태서
■ 관세청
전보 ▲관세국경감시과장 박진원
■ 조달청
◇과장 승진 ▲국제물자국 외자구매과장(관세청 파견) 박진원 ▲인천지방조달청 재구매과장 황춘연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국 국유재산관리과장 박정환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장 김철수 ▲신기술서비스국 건설물자과장 임현익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김종권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장 차윤선 ▲전북지방조달청장 오건수 ▲경남지방조달청장 주계성
■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단장 김현수
■ 한국락워터그룹
신임 본부장 ▲락워터디칼코리아 원부장 김유진 ▲락워터 유권 본부장 김수원
■ KMH아임그룹
◇KMH ▲KMH대표이사 편찬수 ▲KMH아임그룹 경영지원실 부실장 최형욱
◇아시아경제신문 ▲미디어마케팅본부 부사장 윤준학 ▲편집국장 이의철
◇아시아경제TV ▲대표이사 박종헌
◇곽스넷 ▲사업본부장 강민선
◇KMH인스코 ▲총괄이사 조남석
■ 세계일보
▲상임위원 김규영 ▲논설위원 황정미 박춘규
◇편집국 보직변경 및 전보
▲편집국장 한용걸 ▲수석부국장 원호상 ▲부국장 채희청 ▲편집부장 손수현 ▲지교밀보부장 박찬억 ▲경제부장 주춘희 ▲산업부장 김기동 ▲사회부장 조남균 ▲사회2부장 문준식 ▲국제부장 김환기 ▲문화부장 원재연 ▲체육부장 최권태 ▲사진부장 허정호
■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황유석
◇편집국 ▲뉴스부문장 진성훈 ▲종합편집부문장 이창선 ▲디지털부문장 이성철 ▲여론독자부장 김범수 ▲기획취재부장 정진황 ▲산업부장 최연진 ▲사회부장 이태규 ▲국제부장 정영오 ▲문화부장 김혁 ▲멀티미디어부장 손용석 ▲그래픽뉴스부장 김문종 ▲사회부 부산취재본부장 목성균 ▲사회부 호남취재본부장 최수학 ▲문화부 엔터테인먼트팀장 최지기

부고

▲전복진씨 별세, 김종(한국산업기술대 산학협력단장 기계설계공학과 교수)씨 장모상 ▲김선(부산일보 총무국장)씨 빙모상 ▲정주님씨 별세, 정병화(농심 부사장)씨 장인상 ▲유현진(건국대학교 교수)씨 빙부상. 별세 ▲김기헌(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42-611-3344
▲공수자 씨 별세, 박노인(MBC 편성국 편성콘텐츠부 국장)씨 모친상=10일, 보라매병원 영안실 1호실, 발인 12일 오전, 02-841-7152
▲김정래 씨 별세, 이석식(MBC 제작기술국 라디오기술부 부장)씨 모친상=10일,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02-2290-9442
▲한영이 씨 별세, 최종미(MBC 심의국 TV 심의부 국장)씨 모친상=10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2일 오전 031-900-0444

녹십자·일동제약 적대적 M&A?

논란 재점화 · 3대 주주 '피델리티' 칼자루

녹십자와 일동제약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이 1년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싸움의 칼자루가 3대 주주인 피델리티 펀드(FID LOW PRICED STOCK FUND)로 넘어갔다.

일동제약의 2대 주주인 녹십자는 지난 6일 일동제약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일동제약 이사 3명 중 2명을 녹십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녹십자는 "2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일 뿐 적대적 M&A 의도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곧바로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녹십자는 협력과 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반대했다. 또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 일련의 권리 행사가 적대적 M&A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적대적 M&A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입장과 조치를 요구하며 1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문제는 녹십자의 주주제안서에 문제가 없어 일동제약이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다.

현재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등 일동제약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2.52%다. 2대 주주인 녹십자(29.36%)와 불과 3.16%포인트 차이다. 이에 일동제약 지분을 10% 보유한 3대 주주인 피델리티 펀드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다.

미국 피델리티그룹의 자가 가치주 투자펀드인 피델리티 펀드는 지난해 1월 일동제약의 임시 주총에서 녹십자와 함께 회사 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지주사를 설립하려던 일동제약의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경영권 분쟁보다는 주식 가치가 제고되는 것에 주목한 결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결과적으로 피델리티 펀드는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피델리티 펀드가 경영권 싸움보다는 투자금 회수 등 주주 권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델리티의 결정에 두 제약사의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신축 사당체육관 천장 붕괴

매몰된 10여 명 구조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천장 슬라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던 중 일부가 무너지면서 거푸집 위에 있던 작업자 일부와 그 아래에 있던 작업자들 등 10여 명이 매몰됐다. 이중 일부는 완전 매몰됐으며 나머지는 잔해 깔려 일부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수색 구조작업을 통해 매몰자들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중앙대병원과 강남성심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한편 사고 소식을 접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김재홍기자

리스한 외제차를 대포차 판 일당 덜미 서울 강서경찰서가 11일 벤츠·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포차로 불법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외제차량 차키 등 압수품들. /연합뉴스

'열차표 싸게 팔겠다'면 일단 의심

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신년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지난해 설 전후 2주간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평상시 보다 19%나 많았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 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결제 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임을 의심,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16일 선물세트 배송 관련 방문 예정이오니 수령 가능한 시간대 남겨주세요", "설 이벤트 세일 상세 정보 확인" 등의 내용과 함께 '126.15.24.9'와 같은 단축 URL 주소가 붙은 문자가 오면 스미싱으로 간주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을 주의해야 하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금지'로 변경,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jhj@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헉'

2명 사망·63명 부상

짙은 안개로 인천 영종대교에서 최악의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3.8㎞ 지점에서 승용차 등 차량 10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밝혔다.

추돌사고 여파로 공항 리무진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수십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뒤엉켜 도로에 널브러졌다. 또 1차로를 주행하던 리무진 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직후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사고 수습에 나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63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김모(52)씨와 임모(46)씨로 시신은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과 인천 서구 나은병원에 각각 안치됐다. 중상자 10명 등 부상자는 연세대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등 인천 권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외국인 환자 18명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시 습한 대기의 복사냉각으로 영종대교가 짙은 안개에 휩싸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30분을 기준으로 영종대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기상청에서 관측한 인천국제공항의 가시거리는 약 600m였다. 하지만 영종대교에는 기상관측시설이 없어 사고 지점의 정확한 가시거리 측정이 불가능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을 보면 안개가 짙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재용기자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 금지 13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전에 심문이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끝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사법 공조를 통해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정기자